

Contents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1. 세계 콜드체인 물류시장, 연평균 14% 고속 성장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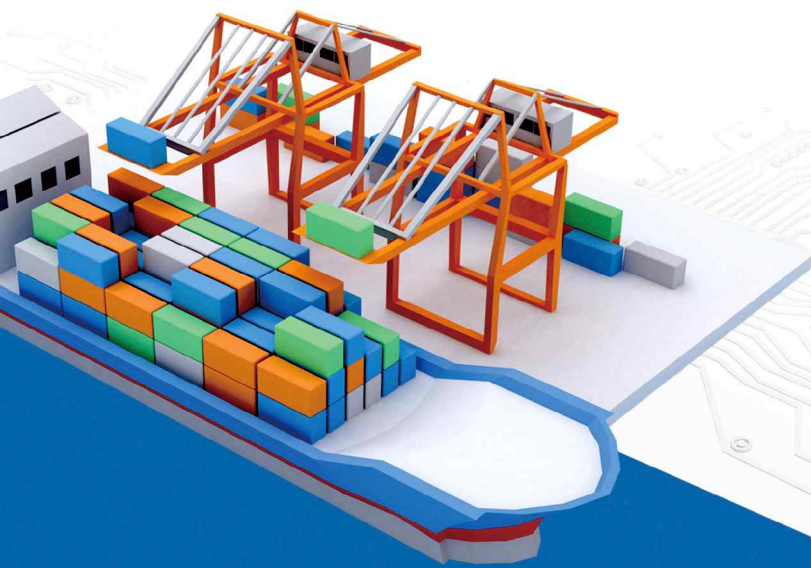
물류정책·산업동향

1. 아마존 물류비용, 2017년 순매출액 대비 26.4%까지 증가
2. CMA-CGM, Reefer 컨테이너 운송용 新 포장용기(REEFLEX) 개발
3. DHL, 미국 남서부 국경지역 물류센터 투자 확대
4. 롱비치항, '배출 제로' 장비 및 기술 도입과 On-Dock 철도 확대

명사 스피치

“...해운산업이 인식을 바꾸고 능력을 갖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수출입기업들도 우리 해운사를 더 많이 이용해서 진정한 상생협력의 길을 걷게 되리라 확신한다 ... 해수부도 선화주가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...”

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
(2018. 2. 13 /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무역-상공-해운 상생 업무협약에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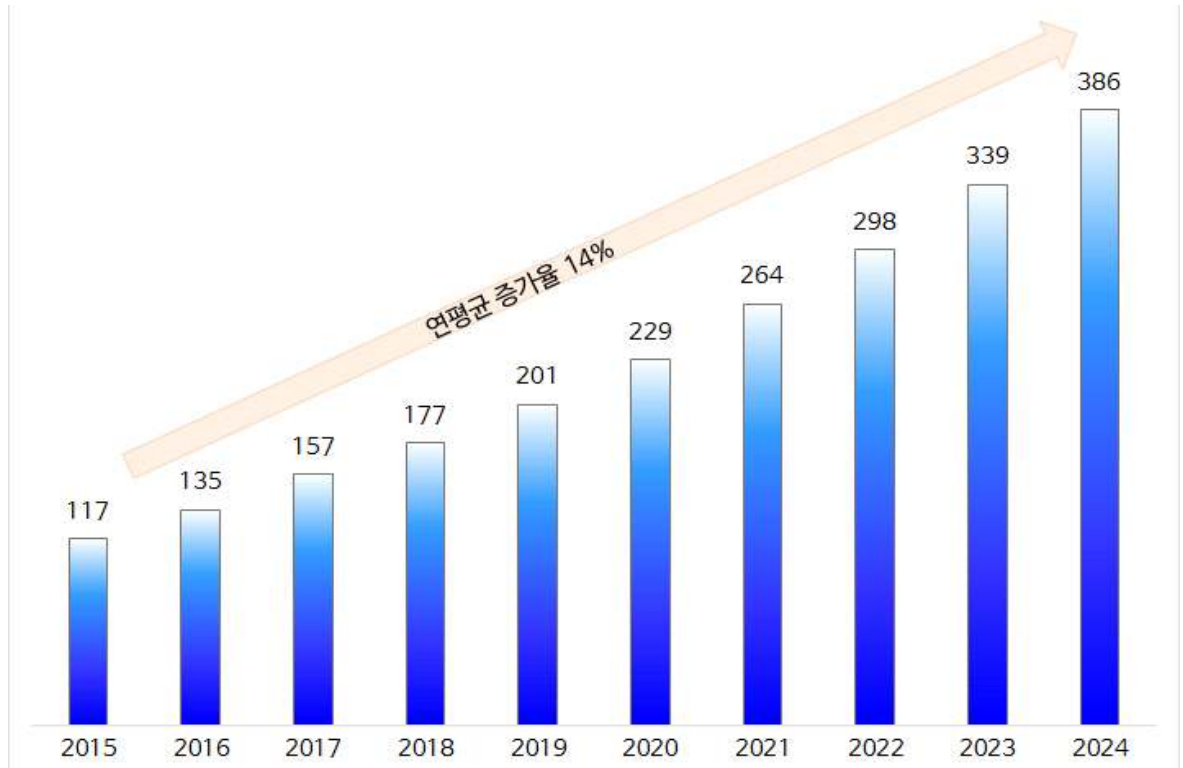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세계 콜드체인 물류시장, 연평균 14% 고속 성장 예상

세계 콜드체인 물류시장의 규모 및 전망 (2015-2024)

(단위 : 십억 달러)



자료 : www.variantmarketresearch.com

- 전 세계 콜드체인 물류시장의 규모가 201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14%의 고속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 - 이에 따라 세계 콜드체인 물류시장 규모는 2015년 1,170억 달러에서 2024년에 약 3,8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
 - 콜드체인 물류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된 요인은 소매 유통 및 식품 산업의 성장과 가공식품 및 냉장·냉동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임
- 향후 콜드체인 물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높은 물류비용과 각 국가별 상이한 관세 및 통관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

참고자료 : <https://www.variantmarketresearch.com/report-categories/consumer-goods/cold-chain-logistics-market>, 2018.02.12.

김동환 연구원

051-797-4913, kdong@kmi.re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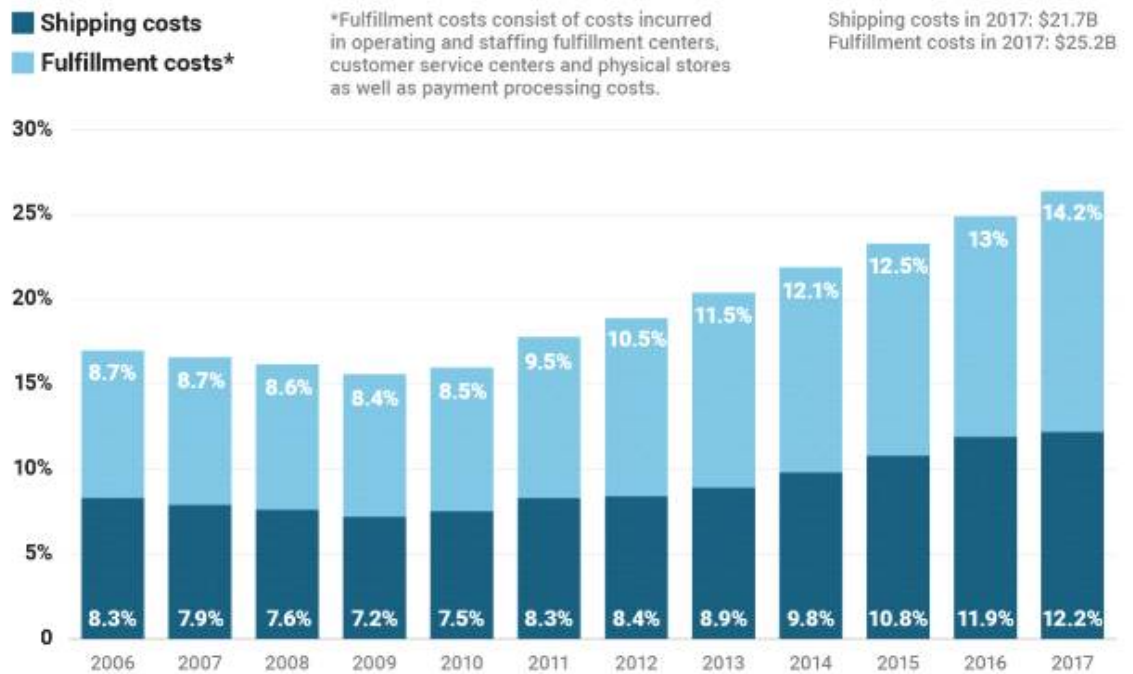
물류정책·산업동향

아마존 물류비용, 2017년 순매출액 대비 26.4%까지 증가

- 아마존(Amazon)은 빠른 성장과 함께, 온라인 소매업체가 주문한 제품을 최종 소비자들에게 수·배송하는 물류비용(fulfillment and shipping cost)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
 - 특히 2010년 이후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물류비용의 비중은 16.0%에서 26.4%로 증가하였음
 - 운송비용은 2010년 7.5%에서 2017년 12.2%로, 풀필먼트비용(물류센터/서비스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와 지불처리비용 포함)은 8.5%에서 14.2%로 증가하였음
- 월스트리트저널(Wall Street Journal)에 따르면 아마존과 같은 유통 대기업들이 조만간 자체 운송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음
 - 이러한 자체 운송 서비스의 도입은 증가하는 물류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쇄시킬 것으로 예상함

아마존의 물류비용 비중 추이 (2006-2017)

Amazon's fulfillment and shipping costs compared to net sales



Source: Amazon

statista | BUSINESS INSIDER

자료 : <http://www.businessinsider.sg/>

■ 참고자료 : <http://www.businessinsider.sg/amazons-logistics-costs-are-growing-really-fast-charts-2018-2>, 2018.2.13.

박성화 전문연구원

051-797-4614, shpark83@kmi.re.kr



CMA-CGM, Reefer 컨테이너 운송용 新 포장용기(REEFLEX) 개발

- 글로벌 해운선사인 CMA-CGM사는 액체화물의 냉동·냉장(Reefer)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 온도 제어 솔루션을 갖춘 새로운 포장용기, REEFLEX를 개발 및 출시함
 - 동 포장용기 REEFLEX는 2018년 2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Fruit Logistica에서 공개됨
 - REEFLEX는 독일의 대표 주스 제조업체인 Teconja사와 액체 수송용 포장 솔루션 전문기업인 Liqua사가 협력하여 개발됨
- REEFLEX는 무균 환경을 제공함과 더불어 일정한 온도 유지가 가능함
 - REEFLEX는 무균 환경을 제공하고 $-35^{\circ}\text{C} \sim +20^{\circ}\text{C}$ 사이에서 정확하게 유지되는 온도 조절을 통해 제품의 영양 및 화학적 특성을 유지함
 - 1개의 REEFLEX(단일 포장용기)에 12,000~24,000리터의 용량까지 저장할 수 있으며, 주스, 우유, 합성수지, 시럽 및 모든 종류의 오일 운송이 가능함
 - 또한 40ft(FEU)의 냉동 컨테이너에서 사용할 수 있는 REEFLEX는 3분 내에 설치가 가능하며, 외부 펌핑(pumping) 시스템으로 35분 내에 주입 및 배출이 가능함
- REEFLEX는 액체화물의 최적 컨테이너운송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며, 수출입 업체가 컨테이너로 상품을 운송함으로써 운송 및 인도 조건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
냉장냉동 컨테이너(FEU)에 적입되는 신개념 포장용기 REEFLEX



자료 : www.worldcargonews.com.

■ 참고자료 : https://www.porttechnology.org/news/cma_cgm_reveals_new_reefer_bag_for_boxing_up_liquids, 2018.2.7. / <http://www.worldcargonews.com/html/w20180208.968123.htm>, 2018.2.8.

김영훈 연구원

051-797-4668, kyh@kmi.re.kr



DHL, 미국 남서부 국경지역 물류센터 투자 확대

- DHL社は 미국 남서부지역 항공 및 해상 화물의 보관, 재고 관리 등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멕시코와 인접한 미국 남서부 국경지역에 물류센터 투자를 확대함
 - DHL社에 따르면 동 투자 확대는 최근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 물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 중 일부라고 밝힘
- DHL社の CEO인 데이비드 골드버그(David Goldberg)씨는 “DHL社は 고객을 위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일환으로 캘리포니아(California)주, 애리조나(Arizona)주, 텍사스(Texas)주에 투자를 확대한 것”이라고 언급함
 - 샌디에이고는 캘리포니아주 남부지역 수출 성장에 기여한 통신, 바이오, 소프트웨어 및 전자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됨
 - 또한 애리조나주는 멕시코와의 인접성이 좋은 노갈레스(Nogales)와 투손(Tucson)지역이 투자확대 지역으로 선정됨
 - 텍사스주는 2015년 약 8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라레도(Laredo) 및 국경 간 소매 무역의 중요한 거점인 맥알렌(McAllen)이 선정됨
- DHL社は 동 남서부 국경지역 투자를 통해 총 300명의 신규직원을 고용하였으며, 전국 18개 도시에 37개의 물류 센터를 확보하게 됨
- 또한 이번 전략적 투자로 인해 미국 전역 및 국경 간 화물 운송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업계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을 전망하고 있음

■ 참고자료 : <http://www.americanshipper.com/main/news/dhl-expands-operations-in-southwestern-us-70523.aspx?taxonomy=SupplyChain>, 2018.2.6.

김병주 연구원

051-797-4784, bjkim17@kmi.re.kr

롱비치항, '배출 제로' 장비 및 기술 도입과 On-Dock 철도 확대

- 롱비치항의 2030 목표는 화물취급 터미널 장비와 정박 중인 선박의 배출가스 제로이며, 2035년까지 전 항만의 트럭까지 배출가스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음
 - 전문이사인 Mario Cordero씨는 항만 기인 배출가스 제로를 궁극적인 목표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타 북미 항만보다 앞서 육상전원공급장치(AMP) 사용과 배출제로 야드장비 및 크레인으로 선박에서 트럭·철도로 신속히 연계 운송해야함을 언급함
- 또한 배출가스 감소와 화물운송 효율 증가를 위해 On-Dock 철도 이용 프로젝트인 'Pier B' 열차 프로젝트를 승인함
 - 2017년 항만 청정대기행동 계획(Clean Air Action Plan)으로 70대의 전기 동력 야드 크레인 도입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한 후, 2018년 2월에는 배출량 감소 및 보다 신속한 화물 운송을 위해 화물을 On-Dock 철도로 이송시키는 Pier B 열차 프로젝트도 승인함
 - 2017년 항만 화물의 25%를 On-Dock 레일로 운송했으며, 이를 통해 철도가 750건의 트럭 운송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알려짐
- 롱비치 항만위원회(Long Beach Board of harbour Commissioners)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6,500만 달러(한화 약 696억 원)의 프로그램을 승인함
 - 롱비치 항만위원회 대표인 Lou Anne Bynum씨는 롱비치항은 클린 기술 도입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

롱비치항의 친환경 계획-배출제로 장비 및 기술도입과 On-dock 철도 확대



자료 : <http://www.greenport.com/news101/americas/long-beach-shares-environmental-plans>

참고자료 : <http://www.greenport.com/news101/americas/long-beach-shares-environmental-plans>, 2018.2.13.

이찬빈 연구원

051-797-4690, cblee7645@kmi.re.kr